

버릴 뻔한 골재 활용...예산절감 효과 '톡톡'

상수도본부, 소모 자재 공개매각

도수터널 공사비 9억여원 절감

광주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공사장 골재를 팔아 예산절감과 수익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해당 골재는 지난 2011년 동북면 도수터널 취수탑 공사현장에 있는 불막이용 골재였다. 업체가 불막이용으로 임시로 사용한 뒤 공사가 끝나면 버려질 소모품이나 다름 없었다. 이 자재는 운반비 등을 포함해 처리비용만도 2억여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김형근 시설과장을 비롯한 상수도본부 직원들은 묘안을 짜냈다. 골재를 별도로 판매할 경우 수익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업체를 설득해 설계를 변경한 뒤 골재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김 과장은 지역 골재 업체들을 수소문하는 등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대부분 업체들은 골재가 있는 곳이 곳이 화순지역이어서 운반비 등 비용이 많이 든다며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지난달 공개매각을 통해 여수의 한 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에게 광주시는 골재 매각대금 1억3000만원을 받게됐다. 여기에도 간접

적으로 처리비 2억원 등 모두 3억3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 셈이다.

유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쇄석골재(碎石骨料) 매각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공사비 절감 방안을 찾고, 품질과 공정관리에도 총력을 다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수도사업본부는 도수 터널공사 현장에서 나온 암석을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회사, 골재 판매 업체들에게 공개매각해 6억원의 공사대금을 절약하기도 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6월말 용연정수장 개량공사와 도수터널 건설공사

를 완료한다.

지금까지는 노후 관로로 원수 공급을 해왔지만 자연유식 도수터널로 변경하게 되면 해마다 35억여원의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

광주시민의 상수원인 화순 동북면에서 동구 용연 정수장을 연결하는 물길인 도수터널 굴착 공사가 작금 5년 만에 마무리됐다.

화순 동북면과 동구 용연 정수장을 길이 12km, 지름 2m의 도수터널로 연결하는 것으로 양쪽의 고도차를 이용해 ‘자연유식’(自然流下式)으로 건설됐다. 총 사업비 824억원이 투입됐으며 2009년 착공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중국 친화 전담팀 구성...인적망 구축 역점

광주시, 18개 단위사업 추진

광주시가 민선 6기 역점 시책인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새롭게 정비한다.

광주시는 15일 파트너십 전략사업 등 4개 과제 18개 단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애초 중국 친화정책은 18개 과제에 63개 사업이었으나 이번에 재편했다.

중국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기존사업 재검토, 추가 단위사업 발굴 등 새 전략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과제 선정에 있어 실현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을 재정비 배경으로 삼았다. 그동안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프로그램 등은 과감히 배제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중국 친화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교류확대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역점을 뒀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파트너십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사업은 청화대와 공동으로 하는 청화포럼 개최, 중국 내 한인 인사의 중국명예협력관 위촉, 한중간 언론매체 협력 확대, 중국문화원 광주유치 등이다.

지역 내 친선사업으로 광저우와의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한 중국문화주간 행사 개최, 한중 청년 네트워크 구축, 중문 간행물 발행 및 온라인 홍보, 중국 유학생 자원봉사단 구성과 운영 등이다.

중국의 3대 음악가 정율성의 브랜드를 활용하고, 시·서화 교류 등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도 주요 사업이다.

다양한 비즈니스 사업도 속도를 낸다.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콘텐츠 시장 개척, 지역업체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등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단위 프로젝트는 중국 관광객과 대학원생 유치, 문화콘텐츠 시장 개척 확대, 지역업체 중국시장 진출 확대, 광주시 주관행사 중국 참가 확대, 건강관광사업 추진 등이다. /윤영기자 penfoot@

천변서 자전거 무료 수리

영산강변 등 8곳 서비스

‘자전거로 천변 달릴 때, 거점 터미널 들러 무상 수리 받으세요’

광주시는 광주천과 영산강변에 조성된 자전거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을 운영한다.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은 교량 아래 여유 공간을 이용해 자전거 무상수리, 안전교육, 자전거 길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전거 통합 서비스 센터’로, 지난해에 총 38회 운영해 2만1000여 명의 자전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당초 일요일 주 1회 운영하던 거점터미널을 토·일요일 주 2회로 확대 하고 광천2교·중앙대교·어등대교·첨단교 등 4곳에서는 천변까지 자전거 이동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공유자전거 무료 대여 서비스도 새로 제공한다.

올해 거점터미널을 운영하는 장소는 용산교·중앙대교·광천2교 등 광주천변 3곳과 첨단교·산동교·어등대교·극락교·승촌보 등 영산강변 5곳 등 총 8곳이다.

거점별로 자전거 전문가 2인을 배치, 3월부터 11월(무더위 때인 7~8월 제외)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주환 광주시 도로과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사업의 하나인 거점터미널 운영은 시민들의 자전거 주행 안전을 도모하며,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건보·시민단체 미래전략 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지난 15일 (재)광주여성재단 장혜숙 대표 등 지역사회 시민·소비자단체 대표를 광주지역본부로 초대해 2025 뉴비전 및 미래전략 실행력 제고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보공단 제공>

“젊은 목소리 냅니다” 2기 청년위원회 본격 활동

광주대 이현영씨, 위원장 선출

광주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2기 광주시 청년위원회’가 최근 의장단(위원장1, 부위원장2)을 선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의장단 선출 투표를 통해 위원장에는 광주대 재학 중인 이현영(25)씨, 부위원장에는 전남대에 재학 중인 정현석(22)·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성명희(24)씨가 선출됐다. 이들은 ‘제2기 광주시 청년위원회’가 활동하는 1년 간 청년위원회를 이끌 예정이다.

이현영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책임감

과 무게감을 느낀다”면서 “광주 청년들이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성공적으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올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월23일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 청년위원회는 경제·일자리, 교육·진로, 문화·삶의질, 참여·소통 등 4개 분과로 나뉘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광주 청년들이 진작으로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한 조사 ▲숨어있는 광주예술가 발굴 ▲광주시 청년기이드 개발 등 각 분과별 주제를 청년들이 직접 선정하고 연구활동을 진행하며 청년의 눈높이로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다.

이정석 광주시 청년인재육성과장은

“올해는 광주에서 대구시에 교류를 제안해 7월 광주청년축제 기간에 대구시 청년위원회가 광주를 방문하고, 10월 대구 청년주간에는 광주시 청년위원회가 대구를 방문키로 하는 등 청년 간 교류를 통해 대구와의 ‘달빛동맹’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 민·관협치를 위한 소통창구로 청년위원회 구성해 ‘빛가람 취업 멘토링’, ‘청년상인 육성’ 등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왔다. 올 연말에는 ‘광주시청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발간해 한해동안의 활동을 공유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건축위원 내달 7일까지 모집

광주시가 오는 4월7일까지 건축위원회 위원 28명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분야는 건축, 토목·조경, 교통, 환경·에너지, 재난안전·범죄예방 등 9개다.

이와 함께,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법률 등 4개 분야 6명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예정이다.

공모에는 각 분야별로 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급 이상, 건축사·기술사·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모집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시 건축주택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

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는 광주시 건축주택과(062-613-4811, 4813)이다.

공개 모집과 관련한 세부 내용과 관련 서식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 건축위원회는 33명으로 운영해오다가 올해 1월1일자로 60명으로 위원을 확대해 2개조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확대 구성 이전의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4월30일 만료됨에 따라 실시하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018년 12월31일까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암 예방의 날’ 행사 다채

화순전남대병원(원장 김경준) 전남지역암센터(소장 김석모)가 오는 21일 ‘암 예방의 날’을 앞두고 기념행사를 펼친다.

18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전남도 주최, 전남지역암센터·화순군보건소 주관으로 기념식과 함께 암예방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 시니어 암예방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전남금연지원센터·각 시군 보건소 등과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 지역민에게 암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19일에는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 간호부와 함께 무등산 일대에서 동반

캠페인을 펼치며 ‘암 예방 10가지 수칙’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지역암센터는 지역민의 암예방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사업장을 비롯, 생활터로 찾아가는 교육·홍보 캠페인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행사 문의전화(061-379-7709).

한편 암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분의 1은 조기진단·조기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착안해 암이 1/3씩 줄어드는 것(3-2-1)을 상징하는 3월21일로 정했다. /채희종기자 chae@

구례,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경매로 취득,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조정가)
- 융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투자 가치! 좋습니다

리모델링후 연 5억원 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